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찌그러지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찌그러지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찌그러지다

완성된 이름

찌그러지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찌그러지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짓눌려서 여기저기 고르지 아니하게 우그러지다.

요약 연대표

표기	17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찌그러디다	-	-	-	-
찌그러지다	-	-	-	-
찌그러지다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짓눌려서 여기저기 고르지 아니하게 우그러지다.

문헌의 첫 기록

17세기

수록 용례

10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0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찌그러지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짓눌려서 여기저기 고르지 아니하게 우그러지다.

☞ 찌그러지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찌그러지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지그러디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씨그러지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찌그러지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지그러디- 문헌 수록 표기	—	—	●→	—	—	—
씨그러지- 문헌 수록 표기	—	—	—	—	●→	●→
찌그러지-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지그러디다
17세기
- 씨그러지다
19세기20세기
- 찌그러지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지그러디-, 씨그러지-, 찌그러지-

ㅂ 찌그러지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찌그러지다’의 옛말인 ‘지그러디다’는 17세기부터 나타난다.

ㅂ 말의 구성과 어원

‘지그러디-’는 ‘*지글-’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지그러’와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를 뜻하는 ‘디-’가 결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ㅅ 소리와 발음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지그러디-’의 제1음절 초성 ‘ㄱ’이 된소리가 되고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ㄷ, ㅌ’이 ‘ㄱ, ㅋ’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제4음절이 ‘지-’가 되어 19세기에 ‘찌그러지-’가 나타난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근대 국어 후기에 ‘ㅅ’을 ‘ㅆ’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20세기에 ‘찌그러지-’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찌그러지다

전체 용례 10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7세기 지그러디-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지그러디-

출처 1670년대 음식디미방 22

용례 01

66 문헌 용례

져로 년후여 저으면 둥으알만 후여 지거든 지버 내면 데곳 지디여시면 지그러디느니 무이 디
져 자로 건더 내고.

현대어 풀이

젓가락으로 연이어 저으면 달걀만 해지면 집어 내라. 덜 지지면 찌그러지니(부서지니) 많이 지저 국자로 건져내고.

19세기 씨그러지-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씨그러지-

출처 1880 한불사전 559

용례 02

66 문헌 용례

씨그러지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758

용례 03

66 문헌 용례

씨그러지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씨그러지-, 찌그러지- 용례 7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씨그러지-, 찌그러지-

📖 출처 1912 추풍감수록 511

용례 04

66 문헌 용례

머리는 무릅갓치 버셔지고 뺨은 통주발갓치 부었고 한 눈은 면화씨 방불하게 씨그러지고 코는 헌신 뒤 일반으로 주저안졌고 여그 더그 종쳐가 슈업시 불거져는지라.

💡 현대어 풀이

머리는 무릎같이 벗겨지고, 뺨은 통주발같이 부었고, 한 눈은 면화씨 방불하게 찌그러지고, 코는 헌신 뒤 일반으로 주저앉았고, 여기저기 종처(腫處, 부스럼이 난 자리)가 수없이 불거져 있는지라

📖 출처 1912 추풍감수록 518

용례 05

66 문헌 용례

씨그러진 눈과 주저안진 코는 여전히 흉악망칙하더라.

💡 현대어 풀이

찌그러진 눈과 주저앉은 코는 여전히 흉악망측하더라.

📖 출처 1914 금강문 20

용례 06

66 문헌 용례

중문 안으로 썩 드러셔는 수롭은 무명 홋두루막이에 다 씨그러진 갓 쓰고 길목 버선에 집신 들메헌 시골 수롭이더라.

💡 현대어 풀이

중문 안으로 썩 들어서는 사람은 무명 홋두루마기에 다 찌그러진 갓을 쓰고 길목 버선에 짚신 들메한 시골 사람이다.

출처 1921 개벽 제12호 62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門前의 마루는 되는 대로 찌그러지고 그 압해 階石은 모다 허트러졌스며 東便의 松亭은 나무
數가 太半이나 줄고 碑閣은 반 넘어 문허저 碑身이 裸體가티 들어났스며 松亭 全面에는 검불
이 그대로 덮히어 사람의 발자취는 보랴야 볼 수가 업다.

㉮ 현대어 풀이

문전의 마루는 되는 대로 찌그러지고 그 앞에 계석(계단의 돌)은 모두 흐트러졌으며 동편의 송정은 나무 수가 태반
이나 줄고 비각은 반 넘게 무너져 비신이 나체같이 드러났으며 송정 전면에는 검불이 그대로 덮히어 사람의 발자취
는 보려야 볼 수가 없다.

출처 1931 동아일보 3월 26일 4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고개를 드니 그의 눈 빛나며 얼굴 무섭게 찌그러진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2 동아일보 12월 22일 3면

용례 09

66 문헌 용례

정선은 괴로움으로 찌그러지고, 눈물로 젖은 낮에 억짓 웃음을 지어서 한갑 어머니의 인사에
대답하였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조선일보 6월19일 8면

용례 10

66 문헌 용례

우리 학교는 가난한 학교다 보아라 더러워진 벽 높은 책상 찌그러진 의자 바람 새는 창문에는
저 모양으로 유리를 박지 못하고 신문지를 부해 발느지 안헛니.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찌그러지다에 관한 주석

‘찌그러지다’와 여기저기 고르지 아니하게 우그러지다를 뜻하는 ‘찌그리다’를 함께 고려하면 고르지 않고 우그러지다 정도를 뜻하는 어근 ‘*찌글’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찌글’이 된소리가 되기 전의 상태가 ‘*지글’이다.

찌그러지다 관련 낱말

찌그리다

찌그러지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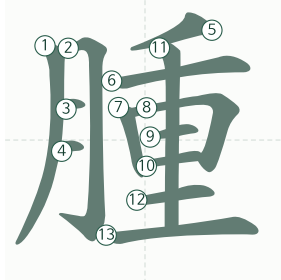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찌그러지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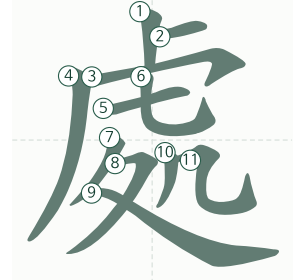
뜻·음 종기 종
총 13획 · 부수 肉



hanja.wordrow.kr/한자/腫/

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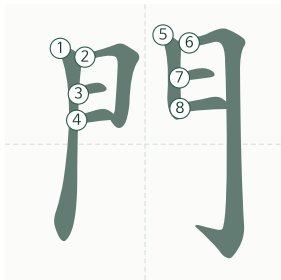
뜻·음 곳 처
총 11획 · 부수 阝



hanja.wordrow.kr/한자/處/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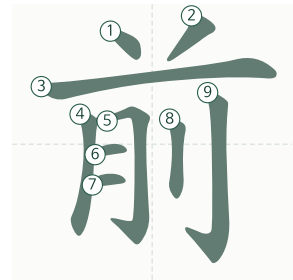
뜻·음 문 문
총 8획 · 부수 門



hanja.wordrow.kr/한자/門/

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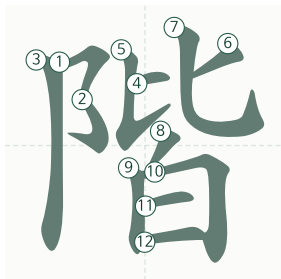
뜻·음 앞 전
총 9획 · 부수 刀



hanja.wordrow.kr/한자/前/

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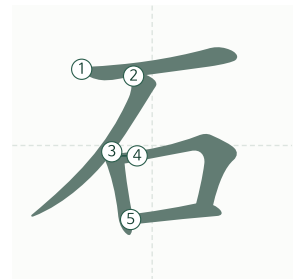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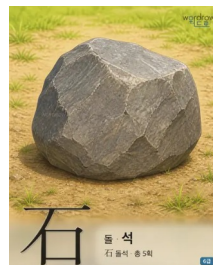
뜻·음 섬돌 계
총 12획 · 부수 土



hanja.wordrow.kr/한자/階/

石

뜻·음 돌 석
총 5획 · 부수 石



hanja.wordrow.kr/한자/石/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東

뜻·음 동녘 동

총 8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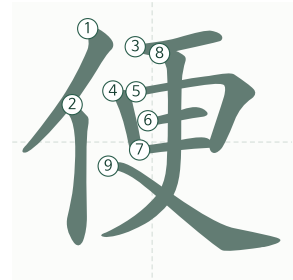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東/

便

뜻·음 편할 편 / 똥오줌 변

총 9획 · 부수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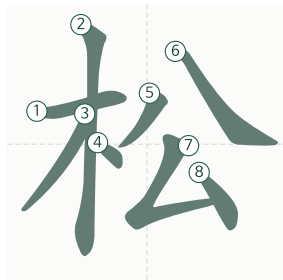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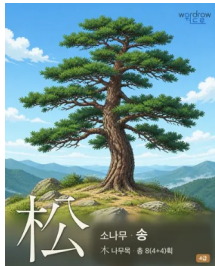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便/

松

뜻·음 소나무 송

총 8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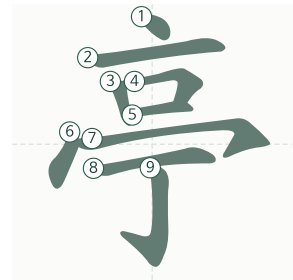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松/

亭

뜻·음 정자 정

총 9획 · 부수 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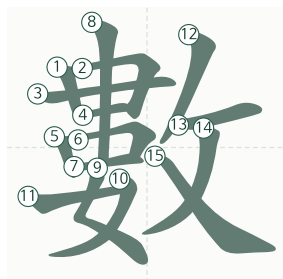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亭/

數

뜻·음 셈수

총 15획 · 부수 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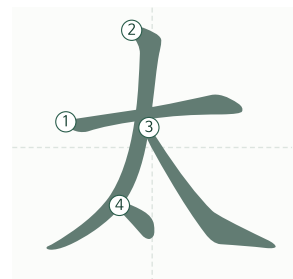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數/

太

뜻·음 클 태

총 4획 · 부수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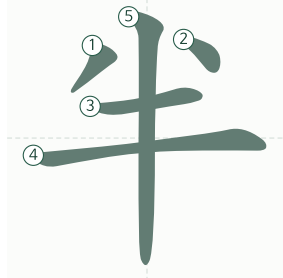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太/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半 뜻·음 반(半) 반
총 5획 · 부수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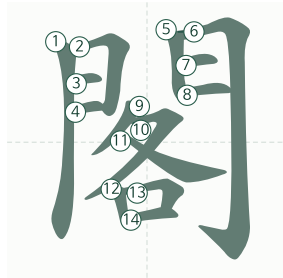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半/

碑 뜻·음 비석비
총 13획 · 부수 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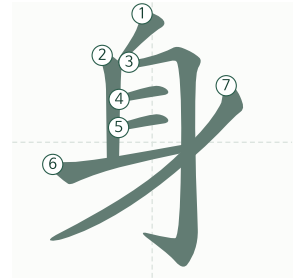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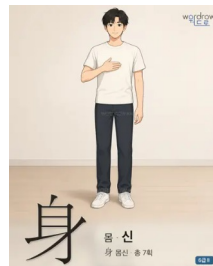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碑/

閣 뜻·음 집각
총 14획 · 부수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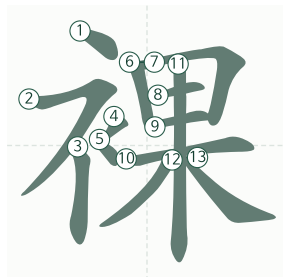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閣/

身 뜻·음 몸신
총 7획 · 부수 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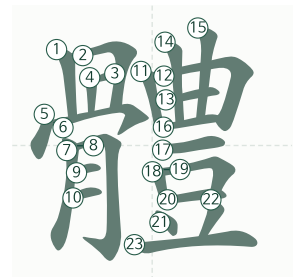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身/

裸 뜻·음 벗을라
총 13획 · 부수 衣



hanja.wordrow.kr/한자/裸/

體 뜻·음 몸체
총 23획 · 부수 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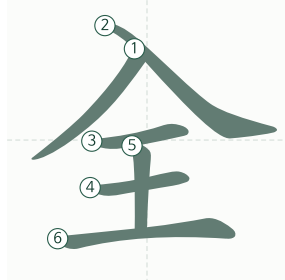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體/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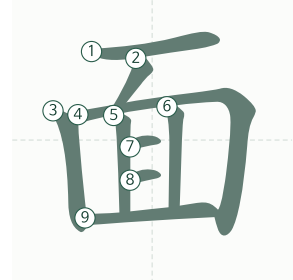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全 뜻·음 온전 전
총 6획 · 부수 入



hanja.wordrow.kr/한자/全/

面 뜻·음 낯면 면
총 9획 · 부수 面



hanja.wordrow.kr/한자/面/